글로 서로 공감하고 표현하는 이야기

서로 표현 書

강현승
김남희
김민소
김재인
함다영
지음

들어가는 말

'서(書)로 표현'은 글 서(書)에서 따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서로 글로 본인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다양한 연령대에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 모여 글을 쓰는 방법부터 본인만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각본집으로 만드는 과정까지에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시나리오 자체를 처음 써보는 친구들도 있고, 경험을 해본 친구들도 있지만 모두가 같은 자리에서 함께 시작한 만큼 완성도는 부족할 수 있어도 친구들의 열정과 이야기가 꾹꾹 눌러 담겨 있는 각본집입니다.

경험을 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 첫걸음을 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길 친구들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차례

도서관에서 – 강현승 작가

어둠에서 찾은 불빛 – 김담희 작가

셔틀콕 소녀 – 김민소 작가

CUT – 김재인 작가

콜라 – 함다영 작가

작가의 소감문

도서관에서

작가의 말

살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삶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난 그동안 뭘 하며 살아온 거지?', '나 너무 지쳤어.'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다 놓아버리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것은,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며 더 성장할 수 있는 때에 왔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고 살아온 한 가지 삶의 방식에 갇혀있었다가, 다른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꼭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도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옳다면 그대로 나아가도 되겠죠. 그러나 내 길에 대해 생각해 보고, 방향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것과 그냥 원래부터 살던 방식이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아직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더라도, 잠시 자신이 나아갈 길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지쳤거나 삶에 의미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잠시 멈춰서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뭔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강현승

등장인물

유현 (17세, 남자)

조용하고 사람들에게 무관심하지만,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부모님의 억압과 학업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자기 파괴적인 충동이 있어 인간관계에서의 상처와 두려움이 있다. 서율과의 대화를 통해 조금씩 자신감을 가지게 되며, 인생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서율 (17세, 여자)

조용하면서 사교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주변에 친구들이 많다. 자신의 속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불안정하고 공허함을 속에 가지고 있다. 겉으로만 잘 지내는 인간관계에 지쳐 진심으로 대화할 친구를 원하고 있다. 그러다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유현의 모습을 보고 감명받아 삶의 의지를 찾게 된다.

#1. INT. 도서관. 낮

점심시간 조용한 도서관
그 안에서 유현은 조용히 책을 읽고 있다.
유현의 앞에 있는 책장에서 서율이 두리번거리며 책을 찾는다.
고르고 있는 책이 너무 높이 있는지 손을 위쪽에 허우적거리며 꺼내지 못한다.

유현 (서율에게 다가가) 찾는 책 있어?

서율 응, 근데 너무 높이 있어서...

유현 어떤 책이야?

서율 (손으로 책을 가리키며) 저기...

유현이 말없이 책을 꺼내준다.

서율 고마워.

유현 그냥... 별거 아니야.

자리로 돌아가 다시 책을 펼치는 유현, 서율이 그 옆에 앉는다.

서율 (유현이 읽고 있는 책 표지를 슬쩍 보며) 너 되게 어려운 책 읽는구나?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유현 옆자리에 슬쩍 앉으며)

유현 (약간 당황하는 듯한 목소리로) 어...? 아... 나도 다 이해하면서 읽는 건 아니야.

서율 (손으로 턱을 괴고 유현을 쳐다보며) 재밌어?

유현 (책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재밌긴 해. 어려운 걸 이해해 나간다는 성취감도 있고.

서율 (흥미롭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구나.

두 사람은 말없이 책을 읽는다.
시간은 흐르고 점심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된다.

서율 (읽고 있던 책을 덮으며) 수업 들으러 가야겠네. 먼저 갈게. (자리에서 일어나 유현을 향해 고개를 쭉 빼며) 앞으론 반에서 나 모르는 척 안 할 거지?

유현 (당황한 목소리로) 어...? 그래, 잘 가.

MONTAGE. 몇 번 두 사람이 조금 거리를 두고 앉아 책을 읽는 장면
책을 읽기도 하고 서로 마주 보고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2. INT. 도서관. 낮

점심시간 책 넘기는 소리와 몇몇 학생들의 작은 대화 소리, 도서부 학생들의 말소리만 들린다.
서율과 유현은 늘 앉는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아 책을 읽고 있다.

서율 (읽고 있던 책을 살짝 내려놓으며) 너는 반에서도 조용히 책만 읽더라. (유현을 쳐다보며) 친구들하고 얘기는 안 해?

유현 (살짝 멈칫하다 다시 책을 읽으며)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서.

서율 근데 너 나랑 얘기할 때는 은근 말 많던데.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

유현 ....

서율 아니면 반에서 내가 먼저 말 걸어줄까?

유현 (움찔하며) 그러면 네 주변 애들도 나한테 관심 가질 거고... 나에 대해서 말 나오고 할 테니까.

서율 그럼, 앞으로도 도서관에서만 얘기해? (손가락으로 도서관을 가리키며)

유현이 조용히 고개만 끄덕인다.

서율 (작게 웃으며) 무슨 비밀 만남 같네. 좋아, 그럼, 도서관에서만.

#3. INT. 도서관. 방과 후 (오후)

점심시간 도서관
유현과 서율은 늘 그렇듯 같은 자리에서 책을 읽으며 대화하고 있다.

유현 ...네가 읽는 거 보면 항상 어둡거나 슬픈 내용이던데, 그런 거 좋아해?

서율 응, 왜? 안 어울려?

유현 너는... 항상 밝잖아. 친구도 많고. 좀 의외라서.

서율 그냥... 막 밝고 희망적인 내용보단 이런 내용들이 좀 더 현실적인 것 같아서. 나도 겉으론 잘 지내는 친구는 많은데, 진짜 나를 이해

해 주는 친구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다들 나한테는 밝은 것만 기대하고.

서율의 말을 듣고 유현이 가만히 서율을 쳐다본다.

서율 (앞으로 기지개를 조심스레 켜며) 조금은, 그래도 책 읽거나 너랑 얘기할 때는 좀 편한 것 같아. 이런 게 진짜 나 같아서.

서율이 싱긋 웃으며 유현을 바라보자, 유현은 잠시 당황해하다 입을 연다.

유현 너는 집에 혼자 가?

서율 응, 다른 애들이랑 방향이 달라서

유현 그럼... 나랑 같이 갈까?

서율 아니.

유현 (창피한 듯 얼굴이 빨개지며) …미안.

서율 (호탕하게 웃으며) 농담이야, 같이 가자. 너무 실망하네. (자리에서 일어난다)

유현 (서율의 시선을 회피하며 급히 짐을 챙겨 일어나며) 실망 안 했어.

황급히 짐을 챙겨 나가는 유현을 웃으며 따라가는 서율

#4. EXT. 집에 가는 길. 저녁

두 사람이 나란히 길을 걸으며 집에 가고 있는 모습
서율이 앞에 보이는 벤치를 보고 멈춘다.

서율 (벤치를 손으로 가리키며) 잠깐 쉬었다 갈까?

유현 그래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때리는 유현과 서율
정적이 길어질 틈에 서율이 입을 연다.

서율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 공부 힘들다.

유현 그러니까

서율 (유현을 쳐다보며) 너는 공부 잘 하지 않아? 너는 안 힘들 줄 알았는데.

유현 나도 힘들지. 근데 힘든 것보다도... (잠시 생각에 잠긴다.)

서율 힘든 것보다 뭐?

유현 방향을 모르겠다고 해야 할까, 어른들이 말하는 대로 살고 있긴 한데... 잘 모르겠어. 길을 따라 걸었는데, 길을 잃은 느낌이야.

서율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며) 네가 정한 방향이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닐까?

유현은 가볍게 충격받은 듯이 움찔한다.

유현 그건... 생각을 못 해봤네. 진짜 내가 원하는 길이 뭔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

서율 뭐, 지금부터 생각하면 되지. 우리 아직 고등학생이잖아.

유현 그렇지....

대화를 계속하며 멀어지는 두 사람의 모습

#5. INT. 도서관. 낮

여느 때와 같이 서율과 유현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다.

서율 으으... 이제 시험 기간인데. 나 공부 좀 가르쳐 주라.

유현 (당황한 듯) 어...? 그래.

MONTAGE. 두 사람이 같이 공부하는 장면이 지나간다.

서율 (기지개를 켜며) 네 설명 들으니까 이해 잘된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공부 잘해?

유현 아니야. 너도 되게 이해도 잘하고, 좀만 열심히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동안은 왜 못하는 척했어?

서율 그동안은 공부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았어서... 그런데 너 보니까 열심히 하고 싶어지더라.

유현 그래, 학생이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서율 (작게) 그런 의미는 아닌데....

유현 응? 뭐라고?

서율 아니야.

유현 그럼 21번 문제는...

다시 공부에 집중하는 두 사람의 모습

MONTAGE. 시험 기간 날짜가 지나가고 시험 장면이 지나간다.

#6. EXT. 집에 가는 길. 낮

시험이 끝나고 서율과 유현이 같이 하교하고 있다.
서율이 유현과 함께 걷다 잠시 멈춰서더니 입을 연다.

서율 유현아. 인생은 왜 사는 걸까?

유현 왜 그래? 시험 망쳤어?

서율 아니, 시험은 잘 봤는데....

유현 그런데 왜?

서율 (유현과 다시 걸으며) 그냥... 다 힘들다고 해야 할까, 삶이란 게 어차피 다 의미 없는 것 같은데, 뭘 위해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유현 (잠시 생각하더니) ...저번에 네가 내 고민에 답해준 뒤로, 생각을 많이 해봤어. 내 인생의 방향에 대해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 네 말대로 삶엔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 그런데도 그 삶에 억지로 맞춰 살아야 하는 것에 지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잠시 멈춰 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

서율 그래? 그럼 멈춰 서서 뭘 할 수 있을까?

유현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아보는 건 어떨까? 넌 혼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보자. 그렇게 하다 보면 삶의 의미도 생겨나지 않을까?

서율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같이... 할 수 있는 거?

유현 응.

서율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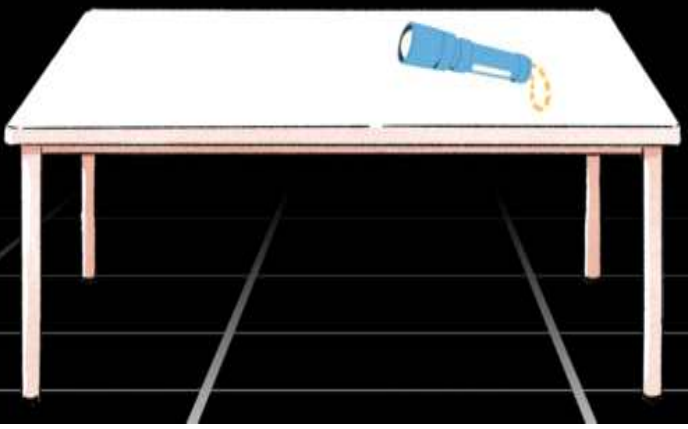
유현 우리 시험 끝난 기념으로 같이 영화 보러 갈까?

서율 (놀리는 듯한 목소리로) 지금 데이트 신청하는 거야?

유현 (얼굴이 빨개지며) 아니야! 그냥 너 기운 내라고 그런 거지.

서율 (웃으며) 그래. 같이 보러 가자!

어둠에서 찾은 불빛



작가의 말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한 건'소중한 것들은 가까이 있을 때는 잘 안 보인다'는 말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존재도 늘 곁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줄고,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처럼 바쁘고, 핸드폰이나 화면만 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정말 가까운 사람과는 오히려 더 멀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현준이라는 인물을 통해 저는 그렇게 무심해진 가족 사이의 거리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도아라는 친구는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빛처럼 다가오는 존재예요. 현준에게 도아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낼 수 있었던 소중한 사람이었고 그 장면들이 누군가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전기나 와이파이처럼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사라졌을 때 얼마나 많은 게 달라지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환경 문제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편하게 누리는 것들의 소중함을 알고 그걸 조금 덜 쓰고 아끼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을 담고 싶었어요.

이 시나리오를 통해 바쁘고 멀어진 일상 속에서도 다시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 수 있는 용기를 떠올려주셨으면 해요. 어쩌면 어둠이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작은 불빛을 볼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김담희

등장인물

이현준 (18세, 남자)

무뚝뚝하고 말이 적으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가족과 거리를 두지만 가까워지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하지만 다가가는 방법을 몰라 혼란스러워한다.
외로움과 불안감이 커 평소 핸드폰에 많이 의존한다. 진정한 가족 간의 소통과 따뜻한 관계를 원하고 있으며, 자신과 비슷한 마음을 가진 도아와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

김민정(엄마) (46세, 여자)

잔소리가 많고 통제적이며, 바쁘고 힘든 현실 속에서 가족을 돌보는 커리어 우먼이다. 가족에 대한 애정은 높으나 표현 방식이 서툴고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답답함을 느낀다. 자신의 걱정과 불안을 잔소리로 풀어내며, 현준의 안전과 미래를 누구보다 걱정하고 있다.

이병준(아빠) (50세, 남자)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으며 감정을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 가족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지만 표현이 서툴고 갈등 상황을 회피하려는 성향이다. 가족 간의 갈등이 없길 바라지만 자신이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어려움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황도아 (18세, 여자)

조용하고 차분한 내성적인 성격으로 따뜻한 인상을 주며, 눈에 띄지 않는 편이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으며, 외로움과 소통에 대한 갈증이 있다. 자신과 깊게 대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

#1. INT 집 안 / 오전 7시

식탁에서 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하는 현준과 가족들
시계는 오전 7시를 가리키고 있다.

엄마 오늘은 숙제 다 했어?

현준은 민정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조용히 먹지도 않을 반찬들을 집었다 놨다가 하며 핸드폰만 보고 있다.

엄마 (화를 꾹 참다 터진 듯한 목소리로) 핸드폰 좀 그만 보고! 그리고 김치랑 야채도 좀 먹어!

현준은 민정을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리곤 말없이 고개만 끄덕인다.

엄마 (가슴을 툭툭 치며 한숨을 푹 내쉬는 민정) 어우 이 사춘기는 언제 끝나냐...

아빠 (신문 넘기며 중얼거리듯) 다 지나가겠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적막. 숟가락 소리만 들린다.

#2. INT 현관 앞 / 오전

시계가 오전 7시 40분을 가리키고 있다.
식사를 다 마친 현준은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가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한다.

현준 (힘이 없고 작은 말투로) 다녀오겠습니다.

#3. EXT 엘리베이터 앞 / 오전

현준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다.
한 층씩 내려오다 현준이 있는 층에서 멈추고 문이 열린다.

엘리베이터 안에 도아가 타고 있고 현준과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웃는 도아

도아 (현준을 향해 손을 흔들며) 안녕?

현준은 그런 도아를 보고 얼굴이 붉어지며 손을 흔든다.

#4. INT 교실 안 / 오전

선생님이 수업하는 소리가 작게 들려온다.
수업을 듣고 있는 도아를 멀리서 바라보는 현준
도아가 뒤를 돌아보니 현준은 화들짝 놀라며 잽싸게 핸드폰을 본다.

#5. INT 집 거실 / 오후

거실 소파에 둘러앉아 다 같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고 민정이 조심스레 입을 연다.

엄마 학교는 어땠어? 뭐 특별한 거 없어?

현준 그냥...

엄마 (한숨을 크게 내쉬며) 넌 매번 "그냥"이야.

현준 왜 맨날 짜증이야.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간다)

CUT TO

#6. INT 집 안 / 오전 7시

다음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방 불을 켜려 일어나는 현준
비몽사몽인 상태로 방 불 스위치를 켠다.
하지만 반응이 없는 방 불

당황한 현준이 스위치를 켰다 껐다 반복한다.

현준 (당황한 표정으로) 뭐야? 왜 안 켜져...?

거실로 나오는 민정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집 안을 둘러본다.

엄마 (거실로 나옴) 현준아, 거기도 안 켜져?

아빠 (휴대폰 확인하며) 인터넷도 안 돼. 뉴스도 안 뜨고.

현준은 와이파이를 찾기 위해 핸드폰을 이리저리 움직인다.

#7. INT 현준 방 / 오후

불이 꺼진 현준의 방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다.
휴대폰 속에는 과거 현준의 가족들이 찍힌 사진들이 있다.
어린 현준 사진. 다 같이 놀이공원에 가서 찍은 사진. 울고 있는 현준을 놀리며 다 같이 웃고 있는 사진 등 여러 사진이 지나간다.

현준 (NA) 예전 사진들... 저땐 다 같이 웃었었네.

사진을 보던 휴대폰이 갑자기 뚝 검정 화면으로 바뀌며 꺼진다.

현준 (나지막하게 중얼거리듯이) 배터리도 끝났네.

옆에 켜놓은 촛불이 전부가 된 방안 어둠이 내려앉았다.
현준은 침대 밖으로 팔을 크게 떨어트리며 한숨을 크게 쉬더니 못 참겠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의자에 걸려있던 외투를 챙겨 밖으로 나간다.

#8. INT 거실 / 저녁

한바탕 전기가 끊어진 소통이 끝나고 조용해진 집 안
병준과 현준은 각자 방에 들어가 있다.
거실에 홀로 나와 앉아 고민에 잠긴 민정

엄마 (중얼거리듯) 이런 날엔 오히려 가족끼리 모여야 하는 거 아닌가…

CUT TO

#9. EXT 집 앞 공원 / 밤

모두가 잠든 밤 조용히 집 앞 공원으로 나온 현준
뭔가 구시렁거리는 표정으로 계속 걷는다.
한참을 걷다 맞은편 벤치에 앉아 있는 도아를 발견한다.
잘못 본 거라도 한 거처럼 의아한 표정으로 도아가 앉아 있는 벤치로
조심스레 향하는 현준

현준 (경계하는 듯한 모습과 말투로) 황도아?

도아는 켜지지 않는 가로등 아래 벤치에 촛불 하나를 의지한 채 묵묵히 책을 읽다, 말소리에 살짝 놀란다.
도아는 현준임을 알고 안심하는 표정으로 조심스레 책을 덮는다.

도아 (안심하는 듯한 목소리로) 어, 너구나.

현준 너도 심심해서 나왔구나? 난 폰까지 꺼졌어.

현준이 전원이 꺼진 핸드폰 화면을 도아 쪽을 향해 흔든다.

도아 (복잡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응... 근데 오히려 조용하니까 좋은 거 같기도 하고...

터덜터덜 걸어와 도아가 앉아 있는 벤치에 앉는 현준

현준 (크게 한숨을 내뱉고) 가족이랑 있어도 말이 없으니까 더 답답해.

도아 ···우리도 그래. 엄마는 항상 바쁘고, 아빠는 나한텐 관심 없고...

현준 (조심스레)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엔 그냥 내가 벽을 쌓은 것 같기도 해.

도아 (잠시 고민하는 듯하더니) 우리, 벽을 좀 허물어볼까?

무언가 결심한 듯한 현준과 도아는 살며시 미소를 띤다.

#10. INT 거실 / 밤

어두워 잘 보이지 않지만 현준의 가족이 가운데 촛불을 의지한 채 거실에 둘러 앉아 있다.
어색한 기류가 흐르고 민정과 병준은 서로 눈치를 슬며시 보고 헛기침만 몇 번 한다.
눈을 질끈 감았다 뜬 현준이 조심스레 입을 연다.

현준 (작은 목소리로) 우리··· 그냥 핸드폰 없이 하루에 하나씩 뭐 해보는 거 어때요?

엄마 (화들짝 놀라 현준을 쳐다보며) 뭐? 너가 그런 말을 먼저하는 날이 오는구나..?

놀라서 당황한 표정에 민정
고개를 돌려 병준을 조심스레 쳐다본다.
약간에 적막이 흐르고 병준도 고개를 돌려 민정과 눈이 마주치고 이내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여는 병준

아빠 (호탕하게 웃으며) 그래. 나 예전에 쓰던 낚시 일기 찾아볼까.

병준은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일어나 잘 보이지 않는 집 안 벽을 작은 촛불 하나에 의지해 더듬으면서 서재로 향한다.

엄마 (아무렇지 않은 듯 신나 하는 목소리로) 그럼 나도 예전 일기 꺼내봐야겠다. 현준이 어릴 때 그림도 붙여놨었는데.

현준 (긴장했던 얼굴이 조금 풀리며) 얼른 가져와 봐요. 빨리 보고 싶어요.

현준의 어리광스러운 말투와 행동에 민정과 병준은 서로 눈이 마주친다.
마치 어린 시절 현준을 보는 거 같이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간다.

#11. INT 거실 / 아침

작게 웅성거리던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지잉- 딸깍!'

전기가 통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순간 거실을 포함한 집 안 곳곳에 불들이 켜진다.
불이 켜지자, 거실 바닥에 다 써서 널브러진 촛불들과 사진, 일기장이 보인다.

이야기하던 현준의 가족들은 잠시 당황하는 듯하더니 다시금 이야기를 이어 나간다.

엄마 (웃으며) 이제 불은 켜졌지만, 대화는 계속하자.

아빠 (끄덕이며) 그게 더 중요하네.

#12. EXT / 등굣길 / 오전

학교 앞 등굣길 현준이 등교를 하고 있다.
고개를 들자, 현준 앞에 도아가 등교를 하고 있다.
도아를 발견한 현준은 도아를 향해 걸어간다.

현준 이제 가냐?

도아 그러는 너는

현준 크흠.. 야 도아야... (잠시 망설이며) 앞으로 너랑 더 자주 얘기하고 싶어.

도아 (현준을 힐끗 쳐다보며) 나도

당황한 듯 기쁜 표정으로 현준은 신나 한다.
그런 현준을 보며 웃음이 터진 도아

도아 (빵 터져 웃으며) 아 왜 저래~

현준과 도아가 웃으며 달려간다.

현준 **(NA)** 어둠이 와서야 보인 것들이 있었다.
불빛이 사라진 대신, 마음의 불을 켜게 됐다.

셔틀콕 소녀

작가의 말

저의 취미는 배드민턴 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에 내용도 배드민턴을 주제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배드민턴을 치다가 네트에 걸리기도 하고 허공에 라켓을 휘두르거나 공이 안 맞는 등 여러 시련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뿐 아니라 시련은 누구에게나 꼭 한 번씩 옵니다.
이때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도망을 가거나 맞서 싸우거나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등 다양합니다.

저는 그중에서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시련을 극복하는지 생각했고 그걸 글로 표현하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시련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김민소

등장인물

김민아 (25세, 여자)

열정이 넘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포기할까, 하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에 무조건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뜻대로 되지 않아 희철과 다툼이 많지만 이내 마음을 잡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박희철 (45세, 남자)

빡빡하고 고지식한 성격이다. 무리해서 연습하는 민아를 진심으로 걱정하지만, 표현 방식이 서툴러 사소한 다툼이 자주 있는 편이다. 민아의 가정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도움을 주려고 한다. 말투에는 짜증과 화가 많이 섞여 있지만 선수를 누구보다 아끼고 걱정하며, 응원한다.

#1. INT. DAY. 배드민턴 연습장

경기장에 여러 선수가 연습하는 모습이 보인다.
여러 연습하는 선수 중 유독 눈에 띄는 민아
단발머리에 작은 체구에서 보일 수 없는 힘과 빠른 속도
그런 민아와 희철이 계속 연습하다 민아가 친 셔틀콕이 네트에 걸려 넘어가지 않는다.

희철 (큰소리로 화를 내며) 공이 계속 네트에 걸리잖아!!!

희철이 큰소리로 화를 내자 민아는 들고 있던 라켓을 던지고 밖으로 뛰쳐나간다. 희철은 한숨을 쉬고 그런 민아를 뒤쫓아간다.

쫓아간 곳엔 민아가 구석에서 쭈그려 앉아 울먹이고 있다.

희철 (한숨을 내쉬며) 네가 실수를 줄이면 되잖아!

우는 민아를 달래고 희철이 민아를 데리고 다시 경기장으로 데리고 간다.

#2. INT. 집. 저녁

민아의 아빠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민아의 아빠는 고개를 돌려 민아를 맞이한다.

아빠 (환하게 웃으며) 우리 딸 왔어!! 고생했어! 얼른 밥 먹자.

낮에 있었던 일 때문인지 민아의 표정은 좋지 않다.

아빠 (걱정하는 목소리) 무슨 일 있었어??

민아는 아빠의 질문에도 아무 말 없이 밥만 먹는다.
그런 민아를 걱정하는 듯한 표정으로 아빠는 쳐다본다.

집 전화벨 소리가 울린다.
민아의 아빠는 후다닥 일어나 전화를 받으러 간다.

아빠 여보세요?

희철 민아 아버님이시죠?

아빠 네.. 맞는데요.

희철 (약간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로) 아.. 민아 감독 박희철입니다. 오늘 민아랑 다툼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아빠 (알겠다는 듯하게) 아... 혹시 무슨 일 때문에 싸우셨나요?

희철 그게 민아가 자꾸 실수해서요. 집중을 잘 못하는 거 같기도 하고.. 혹시 민아 한 번만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아빠 아 네 잠시만요! 민아야!

수화기를 한 손으로 막고 민아를 향해 손짓하는 민아의 아빠
민아는 밥을 먹다 한숨을 쉬고 전화를 받으러 온다.

민아 (약간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여보세요. 왜 전화하셨어요???

희철 너! 엄마 치료비를 내고 싶어서 이번 경기 우승하고 싶다며!

민아 (잠시 멈칫하며) 네

희철 힘든 거 아는데 지금 상태로는 부족해... 많이 노력해야 해 알았지? 조금만 힘내자

민아 (울먹이면서) 네

#3. INT. DAY. 배드민턴 경기장

경기 당일 체육관 곳곳에서는 빠르게 움직이는 발소리와 셔틀콕을 치는 소리, 응원 소리로 가득하다.
그 가운데 다음 경기를 기다리는 민아와 희철

희철 (민아를 쳐다보며) 잘할 수 있어!! (주먹을 쥐고) 화이팅

민아 (긴장한 듯한 목소리로) 네…

경기가 시작되고 양측이 번갈아 가며 치열하게 점수를 따내고 있다.
그러던 도중 민아의 팔에는 묘한 통증이 오고 민아는 경기하는 내내 표정이 좋지 않다.

민아 (팔을 부여잡고 울먹이며) 아... 쓰읍

첫 번째 세트가 끝나고 휴식 시간 민아의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걱정 가득한 표정의 민아와 희철

민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제가 경기를 뛸 수 있을까요??

희철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다짐한 목소리로) 할 수 있어!! 너! 어머님

치료비를 생각해서 우승해야지!!! 정신 차려

민아 (굳게 다짐한 듯한 목소리로) 넵!!

두 번째 세트가 끝이 나고 경기 결과 민아는 2:0으로 승리하게 된다.

CUT

작가의 말

요즘 또래 친구들을 보면,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어떤 사람이 돼야 할지 너무 일찍부터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고요,

이 시나리오는 길고 무거운 머리카락과 속눈썹을 통해 그런 불안이나 우울 같은 걸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보고 싶어서 쓰게 됐어요.

시나리오의 주인공 지안은 '스타'라는 타이틀과 함께 수많은 관심 속에서 자랐지만, 그게 오히려 버거운 짐이 되어 지안을 괴롭게 만들었죠.
저도 가끔은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느라 정작 나 자신은 챙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
"나는 나야."
"다른 사람 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해."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너무 답답하고 지치는 날이 오면 머리보다 마음을 먼저 빗겨주는 건 어떨까요?

김재인

등장인물

지안 (15세, 여자)

어린 시절부터 엄마의 강압적인 양육과 미디어 노출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하다. 엄마가 바라는 스타상에 대한 모습이 새로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괴해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다. 벗어나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기뻐하는 모습에 참았고 꿈속에서 어린 시절 모습과 마주하고 스스로 이 틀을 깨부수겠다고 다짐한다.

지안 엄마 (46세, 여자)

지안을 스타로 만들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하다. 주변에 시선과 관심을 좋아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안을 미디어에 계속해서 노출하려 한다. 지안이 하기 싫어하거나 반항하는 모습을 보고 사춘기, 아직 어려서 모른다. 등으로 합리화한다.

지안 아빠 (51세, 남자)

지안을 아끼지만, 지안 엄마의 열정과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지안이 스타가 되는 쪽을 같이 지지한다. 지안이 스타성과 명예,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자 걱정도 잠시 지안 엄마와 함께 지안을 계속 미디어에 노출하려 한다.

#1. INT. 방안. 새벽

째깍-째깍-

까만 화면 시계 초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조금씩 밝아지며, 책상과 바닥에는 학용품이 널브러져 있다.
커튼이 쳐져 있어 어두운 방 안

휴대폰 알람 소리가 울린다.
지안은 손을 더듬어 휴대폰을 찾아 알람을 끈다.

길게 늘어져 있는 머리카락과 하얀 피부 땀 때문인지 머리카락이 목과 얼굴, 팔, 다리에 달라붙어 있다.

지안 (NA) 이게 다 머리카락 때문이다.

목에 붙어 있던 머리카락을 힘겹게 떼어내며, 지안은 천장을 멍하니 쳐다보다 눈을 감는다.

#2. INT. 화장실. 아침

기묘하면서 간단한 리듬의 음악이 흘러나온다.
침대에 누워있던 지안이 짧은 한숨과 함께 일어나 화장실로 향한다.

지안 (NA)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부른다. '태어나서 한 번도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아이'

화장실 거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지안
그런 지안의 눈동자로 점점 가까워지다 반짝이는 인형 눈으로 바뀐다.

SFX. 바람 소리

#3. INT. 거실. 오후. (회상)

3살 정도로 되어 보이는 어린 지안의 모습
금발머리를 한 바비 인형의 머리를 빗어주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런 지안 옆에서 부모님의 대화 소리가 서서히 들린다.

엄마 (지안을 힐끗 쳐다보곤 속삭이며) 왜~ 인기 있고 주목받아서 안 좋을 게 뭐가 있어?

아빠 (피식 웃으며 신문을 넘긴다) 그건 그렇지만...

엄마 (단호하게 말을 자르며) 몰라 난 무조건 우리 아이 스타로 키울 거야.

엄마는 앉아 있는 지안에 다가가 살며시 들어앉는다.

#4. INT. 현관. 오전. (회상)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지안
10살 정도로 돼 보이며, 머리카락은 엉덩이까지 길게 내려와 있다.

지안이 바라보고 있는 현관에서 엄마가 택배 상자 여러 개를 가지고 들어온다.

엄마 (밝고 분주한 목소리로) 영양제 시킨 게 벌써 왔네! 이게 머리 빨리 기르는 데 최고래. 참! 너 두피 오일은 꾸준히 바르고 있지?

엄마의 폭풍 질문을 듣던 지안은 인상을 살짝 찌푸린다.

엄마 (단호한 말투로) 언제까지 엄마가 다 해줄 수는 없어. 이제 네 머리 직접 관리해야지

지안을 지나쳐 택배 상자를 안으로 들고 들어가는 엄마 그 뒤로는 상장과 트로피, 광고 사진들로 가득하다.

지안 (NA) 10살. 그때의 난 그야말로 '스타'였다.

거실에선 아빠가 티비를 보고 있다.

#5. INT. 방송국. 오후. (회상)

방송국 대기실 앞 지안의 엄마와 수 많은 기자들이 모여있다.

지안 (NA) 모든 시선은 내 머리카락에 집중되어 있었다.

기자 중 한 명이 지안의 엄마에게 마이크를 넘기며 질문한다.

기자1 아이는 어디에 있나요?

엄마 (한숨을 내쉬며) 아마 대기실에 있을 거예요. 아까부터 피곤하다고 짜증을 얼마나 내던지...

기자의 질문에 한숨과 짜증이 섞인 말투로 대답하다 아차싶었는지 말을 돌린다.

엄마 (들뜬 목소리로) 그나저나 이렇게 유명한 브랜드와 함께하다니 꿈만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여기 모델 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딸이 대신...

기자2 (엄마의 말을 끊으며) 모델 일은 아이가 원해서 시작한 게 맞나요?

엄마 (인상을 찌푸리며) 지금이야 어리니까 잘 몰라도, 결국 나중엔 고맙다고 할 걸요?

다른 기자들의 질문에 행복해 보이는 표정으로 대답하는 지안의 엄마
몇몇 기자들은 갸우뚱하는 듯 표정을 짓고 마이크를 살며시 내려놓는다.

#6. INT. 화장실. 아침 (회상 끝)

찬물로 세수하는 지안 고개를 들고 거울을 다시 바라본다.
얼굴과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쉰다.

지안 (NA) 하지만 스타라는 건 결국 잠깐 반짝일 뿐이다. 언젠가부터 난 빛을 잃었다.

피곤해 보이는 지안의 표정과 남들보다 2배는 길어 보이는 속눈썹이 눈에 띈다.

지안 (NA) 어느 순간부터 내 머리도 얼굴도 전부 지겹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

지안은 화장실 서랍에서 빗을 꺼내 머리를 빗으려 하나 길게 엉켜 잘 빗어지지 않는다.
빗질이 안되자 지안은 신경질적으로 시도하지만 실패하곤 빗을 바닥에 던진다.

지안 (짜증과 서러움이 섞인 목소리로) 나도 지겹다고...

#7. EXT. 등굣길. 오전

지안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등교하고 있다.
등교하는 지안을 지나쳐 다른 학생들이 웃으며 뛰어간다.
또래 학생들이 지나가자, 지안은 흠칫 놀라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다.
그리곤 쫓기듯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뜬다.

#8. INT. 교실 안. 오후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교실 안 창가 자리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지안

FLASH BACK. 교실-집-학원-등하교 순서로 지안의 똑같은 모습이 보인다.
달라지는 건 지안의 머리와 속눈썹 길이뿐이다.

지안 (NA) 아무도 나한테 괜찮냐고 묻지 않는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FADE OUT. 빗소리

#9. INT. 학교 후문. 오후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다.
지안은 그런 빗속을 홀로 맞으며 걷고 있다.
비를 맞아서 그런지 유독 지안의 몸이 무거워 보인다.
주변 아이들은 그런 지안을 이상하게 쳐다보며 수군거린다.

빵빵-

빨간 불로 바뀐 신호등 지안은 비틀거리며 신호등을 지나가고 차들은 그런 지안에게 클락션을 울리며 피해서 간다.

지안 (작게 한숨을 내뱉으며) 하...

터덜터덜 걸어가는 지안 뒤로 검은 발자국이 생긴다.

#10. INT. 집 현관. 오후

비에 젖은 지안이 집으로 들어온다. 젖은 채로 침대에 눕는 지안

띠링-

지안의 휴대폰 알람이 울린다.

'dOwhaqhk님이 ji_an을 태그했습니다.'
'dOwhaqhk님의 게시물에 누군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동네미스터리님이 ji_an님을 태크했습니다'

익명1 (NA) ㅋㅋㅋㅋ 와 ㄹㅈㄷ 개징그러움

익명2 (NA) @친구 ㄹㅇ 니 여친 아님? ㅋㅋㅋ

익명3 (NA) 와 나였으면 쪽팔려서 밖에 못나옴ㅜ ㅋㅋㅋ

모르는 사람들이 지안을 SNS에 태그하여 올린 게시물과 조롱이 섞인 내용이 올라온다.

지안 (핸드폰을 툭 떨구고 지겹다는 목소리로) 이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CUT TO

#11. INT. 교실 (꿈속)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는 지안
교실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지안은 침을 꼴깍 삼키고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간다.

지안이 문을 열자 시끄러웠던 교실에 순간 정적이 흐르고 아이들의 시선은 일제히 지안에게 쏠린다.

지안 (겁에 질린 표정과 목소리로) 허업....!

놀란 지안의 발목과 손목을 지안의 긴 머리카락이 감싼다.
중심을 잡지 못하는 지안 그런 지안을 향해 아이들은 키득키득하며 웃고 있다.

학생1 (변조된 목소리로) 괴물

학생2 (변조된 목소리로) 괴물

학생3 (변조된 목소리로) 괴물

교실 안에 있던 아이들은 일제히 같은 말을 내뱉는다.
지안의 머리카락이 이내 지안의 목까지 조여오고 지안은 숨쉬기 힘들어한다.
점점 머리카락에 감겨 결국 깊은 바닷속처럼 지안은 삼켜진다.

#12. INT. 방안 (꿈속)

바닥에 누워있는 지안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인다.
정신을 차린 지안은 힘겹게 몸을 불빛이 향하는 곳으로 옮긴다.

그곳은 10살 지안이 인형과 함께 놀고 있다.

어린지안 (경계하는 듯한 목소리로) 누구세요...?

지안 (당황하는 목소리로) 나..? 나는...

CUT TO

#13. INT 방안. 저녁

꿈에서 깬 지안은 식은땀을 잔뜩 흘리고 있다.

지안 (헐떡이는 목소리로) 난... 누구지?

CUT TO

#14. INT. 화장실. 새벽

지안은 침대에 누워있다가 뭔가 결심한 듯 화장실로 향한다.
화장실 서랍에 놓여 있는 수많은 머리 관리 도구 중 가위를 든다.
거울 속 엉망이 된 지안의 모습

MONTAGE. 거실에서 인형과 놀고 있는 어린 지안에게 조금씩 다가가는 지안의 모습

이내 들고 있던 가위로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을 자르는 지안
머리카락을 자르자, 검은 물로 변해 하수구로 흘러 내려간다.
삐뚤빼뚤 잘린 머리카락과 모습이 거울에 비치자, 지안은 희미하게 미소를 짓는다.

엄마 (NA) 넌 스타야

친구1 (NA) 괴물! 저리가!

아빠 (NA)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친구들 (NA) 넌 괴물이라고!!

머리카락을 다 자르자 길게 늘어진 속눈썹도 자르는 지안
조심스레 가위를 내려놓고 거울을 본다. 짧아진 머리와 깔끔해진 눈가

지안 (떨리지만 단호한 말투로) 아니

MONTAGE. 어린 지안에게 말을 거는 지안

지안 (결의있는 목소리로) 나야

콜라

함다영

작가의 말

이 작품은 어느 날 친구가 탄산음료를 마시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아 쓰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콜라를 마시는 모습이 마치 원시인이 처음 탄산을 발견하고 마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 우스꽝스럽고 신선한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 순간, '이 장면을 모티브로 시나리오를 쓰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랐고, 그렇게 **《콜라》**라는 작품이 시작되었습니다.

《콜라》의 주인공 '여지'는 아무것도 없는 방 안에 갇혀 지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탈출을 시도하거나, 점점 정신적으로 무너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지는 다릅니다. 그는 방을 나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더 편하게 느낍니다. 다만, 조금 심심할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 안에 콜라 한 캔이 나타납니다.
여지는 그 콜라를 마시지 않고, 마치 보물처럼 아껴둡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콜라와 감금된 공간을 보여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이 문장은 이 작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마시지 않는 콜라 캔은 그저 철로 된 용기일 뿐이며, 마셔야만 '콜라'로서 존재 의미를 갖게 됩니다. 주인공 여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음으로써, 삶의 변화나 의미를 스스로 유보해 왔습니다.

작품의 마지막에서 여지는 결국 콜라의 뚜껑을 엽니다.
그는 마침내 콜라를 마시며, 그 순간 스스로의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그 장면은 여지가 처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한 상징적인 순간이며, 동시에 이 작품이 관객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장 명확히 드러냅니다.

이 작품을 보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여지'입니다.
아직 열지 않은 콜라 캔을 곁에 두고 있지는 않나요?
어떤 일에 대한 가능성, 희망, 두려움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행동하세요.
마시지 않는 콜라는 그저 콜라 캔일 뿐입니다.

함다영

등장인물

김여지 (20대 후반, 여자)

활달하지만 소심하고 상처를 잘 받는 성격이다.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어 하지만 사실 사회에서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웃는다. 그게 웃지 않아도 될 상황일지라도

#1. INT. 방안. CONTINUOUS

사방이 흰색으로 덮여있는 아무것도 없는 방 안.
그곳에 웅크려 누워있는 흰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백발을 한 여지.
조금 뒤 여지는 웅크려 있던 몸을 일으키고 화면 앞으로 천천히 다가온다.
여지는 화면 밖을 응시하는 듯한 시선으로 갑자기 설명하기 시작한다.

여지 (방긋 웃으며) 안녕? 난 지금 여기에 갇혀있어. 아무것도 없는 이 방에 (자신의 뒤를 가리키며) 여기에 갇힌 지 얼마나 되었는지도 모르겠어. 300일부터 안 셌거든. (한숨을 쉰다.) 아무튼! 그래서 난 여기서 뭐 하냐고?

MONTAGE. 앉아서 손가락, 발가락 개수를 세고 있는 여지

여지 뭐, 하루 종일 손가락 발가락으로 숫자를 세던가,

MONTAGE. 혼자 무아지경으로 춤을 추고 있는 여지

여지 아니면 뭐 혼자 춤을 추거나

MONTAGE. 벽을 두드리고 다니는 여지, 그러다 벽에 머리를 박고 다리로 벽을 치는 여지

여지 흠.. 벽을 두드려본다든가?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고있지…

여지는 아주 잠깐 씁쓸한 표정을 짓는다. 그러다 놀란 듯 박수를 친다.

여지 (놀란 듯한 표정으로) 아..! 화장실은 어떡하냐고?

여지는 말하다 말곤 갑자기 미친 듯이 웃다 멈춘다.

여지 (웃다 나온 눈물을 닦으며) 아니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여기 갇힌 이후로 배가 고프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도 돼. 진짜 신기하지? 이건 좋은 것 같기도? 근데 내가 지금 누구한테 말 걸고 있는 거냐고? 심심하니까 혼잣말하는 거야.

여지는 혼자 자지러지며 웃는다.
웃음이 멈추며 가만히 천장을 응시하는 여지.
방안에는 어떠한 소음도 들리지 않는다. 그저 천장을 향해 누워있는 여지만 있을 뿐이다.

여지 (큰 소리로) 아아!! 심심해!!

여지는 누워서 발버둥을 친다.
그러다 발로 무언가를 툭 치는 소리.
발밑으로 무언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린다.

여지는 화들짝 놀라 곧장 몸을 일으켜 소리가 난 곳을 바라본다.
옆으로 누워있는 콜라 캔 하나.
순간 정지가 된 여지.

그러나 곧바로 콜라 캔으로 몸이 튀어 나가 콜라 캔을 가까이서 지긋이 본다.
눈물을 흘리는 여지.

여지 (감격스러운 표정과 몸짓, 그리고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안녕?

여지는 이내 콜라 캔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방안을 빙빙 돌기 시작한다.
웃으면서, 또는 울면서, 한참을.

FADE OUT

#2. INT. 방안.

누워있는 여지와 그 앞에 콜라 캔. 여지는 소중한 것을 다루듯 콜라 캔을 쓰다듬는다.

여지 (떨리는 목소리로) 넌 어떻게 여길 왔니? 난 기억이 나질 않아…

콜라 캔은 대답이 없다. 하지만 여지는 계속 말한다.

여지 (콜라를 어루만지며) 나…사실… 네가 오기 전까지 내가 외로운 줄 몰랐어, 근데 네가 오고 나서 알았어. 아… 내가 많이 외로웠구나…외로웠구나… 고마워. 이제 안 외로울 것 같아. 나랑 평생 함께해 줘.

여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조심스레 콜라 캔을 품에 넣고 편안한 표정으로 잠에 든다.
방 한가운데 웅크린 여지와 여지 품의 콜라 캔.

#3. INT. 방안.

여지는 평소 하던 일들을 콜라 캔과 함께한다. 행복한 웃음과 함께.

MONTAGE. 앉아서 손가락, 발가락 개수를 세고 있는 여지, 그리고 옆에 콜라 캔

MONTAGE. 벽을 두드리고 다니는 여지, 그리고 옆에 콜라 캔

무아지경으로 춤을 추고 있는 여지, 그리고 여지 손에는 콜라 캔이 있다. 여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하다. 콜라 캔을 보는 눈에는 사랑이 묻어있다. 여지가 함박웃음을 짓던 순간 발을 헛디뎌 넘어진다.

그리고 콜라 캔을 바닥으로 떨어뜨린다.

쿵-

정적이 흐른다.

여지는 깜짝 놀라 용수철처럼 재빠르게 몸을 일으켜 콜라 캔에 다가간다. 여지는 콜라 캔을 들어 올린다.

여지 (잔뜩 놀란 목소리로) 괜찮아? 미안해. 안 다쳤어?

여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콜라 캔을 본다. 그와 동시에 여지는 화들짝 놀라고 만다. 콜라 캔의 모서리 부분이 찌그러져 있었던 거다.

여지 너 왜 이래? 어떡해... 나 때문에

찌그러진 콜라 캔을 보고 여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다가 멈춘다.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여지

CUT TO

#4 EXT. 놀이터 앞 벤치. D (회상)

놀이터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벤치에는 찌그러진 콜라 캔을 두 손에 쥐고 울고 있는 어린 여지
그 옆에는 여지의 아버지가 앉아 있다.

여지 아빠 (우는 여지를 달래며) 여지야, 울음 뚝. 울지마, 캔이 다쳐서 우는 거야?

여지 (울면서) 내가 넘어져서, 내가 떨어뜨려서, 나 때문에 찌그러졌어.

여지 아빠 (우는 여지를 달려주며) 괜찮아, 콜라 캔에서 중요한 건 이 캔이 아니라 (여지의 손에서 콜라 캔을 뺏는다) 이 안에 든 콜라란다. (콜라 캔을 따고 한 입 시원하게 마신다. 그리고 콜라 캔을 여지에게 건네며) 자, 여지도 한 입 마셔.

울던 여지는 눈물을 그치고 아빠에게 받은 콜라를 손에 쥐고 있다.
가만히 아빠와 콜라를 번갈아 보는 여지

CUT TO

#5. INT. 방안. (회상 끝)

바닥에 누워있는 채로 울고 있던 여지
얼마나 울었는지 바닥과 얼굴엔 눈물 자국이 가득하다.
그리고 이내 결심한 듯한 여지의 표정.

여지 (다짐한 목소리로) 나 이제 알겠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지는 자신의 옆에 있던 콜라 캔을 따서 한 입 시원하게 마신다.

작가의 소감문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시나리오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시나리오를 처음 써보게 되었고 이것이 제 첫 번째 창작 글쓰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처음이라 많이 헤매기도 했고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만큼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생겼습니다. 글을 직접 쓰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좋은 글을 써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 글을 쓰는 것이 아닌, 다른 친구들과 함께 글을 쓰고 같이 피드백도 받고, 서로 피드백하기도 하면서 단체활동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 활동해 준 친구들, 그동안의 활동에 도움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강현승

이번 시나리오를 처음 써봤는데 그동안 책이나 영화,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장면은 어떻게 만들까?'라는 생각은 해봤지만, 직접 이야기와 대사, 장면을 하나하나 구성해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처음에는 막막하고 어려운 줄 알았는데, 막상 쓰다 보니까 점점 인물들에게 감정이 생기고, 그 인물들을 통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특히 제가 만든 인물들이 말하고, 움직이고, 서로 영향을 주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걸 느끼는 게 새롭고 신기했어요. 시나리오라

는 형식을 통해 제가 평소에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작업을 하면서 '내가 이런 글도 쓸 수 있구나','앞으로 더 다양하고 깊은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도 생겼어요. 시나리오를 쓰는 일이 단순히 글을 쓰는 걸 넘어서, 하나의 집을 만드는 느낌이었어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여러 이야기들을 시나리오로 계속 써보고 싶어요.

김담희

이 시나리오를 처음 쓰기 전에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짝 멘붕이 오긴 했는데 막상 글을 적으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 감이 조금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열심히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의문이 살짝 들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썼고 피드백도 받고 하니까 대충 어떻게 쓰는 것이 이해가 조금 되었고 혼자 힘으로 글을 끝까지 다 완성하니까 뿌듯했습니다.

김민소

전부터 영상에 관심이 많았지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시나리오에 대해 배우고 또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꿈을 향해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김재인

언제나 시나리오를 완성한다는 것은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담당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천천히 가르쳐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마음 편히 시나리오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르바이트 시간과 겹쳐서 일주일 두 번 수업을 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늘 응원해 주신 교육팀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함다영

서(書)로
표현

지은이 ‖ 강현승 김담희 김민소 김재인 함다영
엮은이 ‖ 이선아

제작 지원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서울특별시교육청용산도서관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고마운 사람
박경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글로 서로 공감하고 표현하는 이야기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즐거움으로 변하는 과정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로 이어지는 이야기

시흥청소년미디어센터